

# “무등산 지켜본 광주를 작업”...서사 되새기다

## CULTURE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지난해 12월 대인시장에서 우연하게 그를 만났다. 모자를 꼭 눌러쓴 그는 굉장히 차가운 곳에 오랜 시간 머물다 온 사람 같았다. 추위 보였기 때문이다. 소박한데 투박한 모습 그 자체로 그를 만난 후에야 그가 뭐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등산을 카메라 앵글에 담기 위해 머물러온 사람이다. 그는 전라도 사람도 아닌, 경북 성주가 고향이다. 이런 그가 무등산과 광주, 5·18민중항쟁과 윤상원 열사 및 춘설현을 늦게나마 두루 알겠다고 광주를 제 집처럼 다녀다 보낸 시간에 대한 기록이 드디어 펼쳐진다.

주인공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뒤 사진으로 전향해 '지리산 프로젝트' 등 사진작업으로 활동을 펼쳐온 임채욱 작가가 그다. 임 작가는 지난달 27일 개막, 오는 27일까지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무등산'이라는 타이틀로 한 사진전을 열고 있다. 출품작은 영상 3점과 사진 24점. 이번 전시에서 무등산이 주제가 된 사진에 바탕해 광주의 서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식과 구성으로 선보이는 가운데 무등산(광주의 역사를 지켜본 산), 무등산 의재길(차와 예술의 길), 무등산 오월길(5·18 민주화길), 그리고 엔딩에 해당하는 무등산 물길(남도 정원의 길) 등

임채욱 작가展...작품 27점  
오월정신 자취 사진에 투영  
27일까지 광주 은암미술관  
“비상계엄은 작업 전환점”



‘무등산’

4가지 주제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무등길이 아닌, 물길로 명칭을 정한데는 광주정신의 면면한 흐름을 표현하고 싶어서였다. 배롱나무 꽃 떨어질 때 장노출로 촬영, 붉은 꽃이 떨어져서 흘러간다는 것을 표현했다. 총장22 입주작가로 머물며 작업한 그는 먼저 무등산 촬영 작업과 관련한 소회를 들려줬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주말만을 이용했기에 소쇄원 등 원거리에 갈 때는 난감했구요. 무등산 작업은 내가 바라본 무등산을 작업한 것이 아니라, 무등산을 지켜본 광주를 작업한 것이죠.” 전시공간은 지난해 6월부터 목석, 은암미술관으로 정했지만 10월에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

상 발표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까지 국내 상황이 급변하면서 전시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그는 비상계엄을 경험하지 못했으나 12·3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비상계엄 당시 그는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했다. “과거 계엄을 겪은 광주가 있었는데 다시 12·3 계엄이 서울에서 발동된 거예요. 비상계엄이 옛날 이야기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가 돼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올 1월에 5·18의 상징 공간인 전남대에서 그것을 잊기 위해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전남대에서 동백을 봤는데 날씨가 추워서 꽃은 피지 않았더군요. 전세대의 비상계엄이 대중 가을로 해서 종결됐는데 12월 이후 현재의 비상계엄을 담아야

했기 때문이죠. 1980년 비상계엄 이후 45년만에 다시 계엄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백이 상록수라는 점에서 김민기의 목소리 한 소절 또한 떠올렸고, 매해 피는 동백이기에 동백꽃으로 물드는 광주정신을 꽃 피는 것에 비유, 엔딩으로 꾸미는데 집중했다. 관객들이 꽃잎 한잎을 가지고 윤상원을 기리면서 떨어지더라도 광주정신이 계속 된다는 콘셉트로 방점을 찍도록 했다. 앞서 말한 김민기의 노래 한소절은 물론 자신이 최애로 삼은 말러 교향곡 ‘부활’을 영상에 삽입해 광주의 비장미와 숭고미를 배가시켰다. 그는 말러를 워낙 좋아해 앨범만 40~50장을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말러가 1911년 5월 18일에 사망했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지리산 전시 때도 말러의 ‘교향곡 5번’을 삽입했다. 말러는 그와 함께 할 듯하다. “무등산 작업은 타이밍적으로 운명적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무등산을 보면 인수봉이 떠올려져요. 인수봉이 서울을 바라보고 있다면 무등산은 광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극과 극의 타이밍을 탄 것 같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도 그렇고, 현 정권의 비상계엄도 그렇구요. 상상할 수 없는 극과 극의 사태를 겪었다고 봅니다. ‘지금 작업을 안하면 언제 하나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어요.’ 임 작가는 북한산 관련 도록을 3권 냈지만 전시를 열지 못했다. 북한산 관련 전시를 한 차례 열 생각이다. 이와함께 300부를 찍은 도록의 ‘무등산’ 글씨는 정발제와 인쇄대, 규방암 등에 있는 바위(주상절리)를 하나씩 조합해 만들어 독창적이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애니 주제곡부터 음악극까지 ‘합창의 재해석’

광주시립합창단 연주회  
10~11일 예당 소극장서  
‘흥부와 놀부’ 음악극 등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1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 ‘칭구야~ 놀음~자’가 오는 10월과 11월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다가오는 봄을 맞아 광주시립합창단이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한 공연을 펼친다.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I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 ‘칭구야~ 놀음~자’가 오는 10월과 11월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이 음악을 친숙하게 접하고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무대로, 기존의 정적인 합창 무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체험형) 공연으로 마련된다. 특히 애니메이션 주제곡 메들리와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를 기반으로 한 음악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1부 공연 ‘안녕, 만화 속 친구들!’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애니메이션 주제곡 ‘공룡 레인저스’, ‘너의 위시켓을 불러봐!’, ‘너를 처음 본 순간’, ‘슈팅스타 캐치!’, ‘헬로 카봇’ 등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울동으로 선보인다. 또 ‘꿈꾸는 노래 친구들’ 등도 합창 메들리에서는 ‘아기 염소’, ‘술숙을 곁어요’, ‘기차를 타고’, ‘네 일 클로버’, ‘참 좋은 말’ 등 친숙한 동요를 들

려준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놀이 음악 시간으로 이어져 몸으로 음악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2부 공연에서는 친숙한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를 음악극으로 재해석해 합창과 연기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다채로운 음악과 흥미로운 연출로 어린이들은 물론 보호자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밀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퍼커션 연주자로 이탈리아 등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고동현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인다. 연기지도는 장편, 단편영화 등 드라마와 다양한 작품에서 배우와 연출로 활약하고 있는 양흥주가 맡았으며, 안무지도는 서울예고와 이화여대 무용과를 졸업하고, 상명대 공연예술

경영 석사와 이탈리아 가스파레 스포티니 예술경영 박사 과정을 마친 전문 무용가 김명주가 참여해 역동적인 무대를 연출한다. 임창은 광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는 “아이들이 합창과 음악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한 공연”이라며 “음악과 놀이가 어우러진 이번 공연을 통해 가족 모두가 행복의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 시간은 10월 오전 10시 40분과 11월 오전 10시 40분·오후 7시 30분에 총 세 차례 열린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오전 공연은 단체 예매로만 진행된다. 입장료는 성인 1만원, 미취학 아동 1000원. 문의 062-613-8245.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 전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추가공모

청년예술가·공연장 협력 예술단체 등 지원...접수 14일부터

전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25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추가공모를 오는 14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추가공모는 집중지원 사업 중 청년예술가 활동지원(연속 1년차), 자율기획형(경계없는 예술), 공연장 협력 예술단체 지원(육성지원) 3개 분야에서 이뤄지며, 18건, 3억1500만원 내외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전남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청년예술가 활동지원(연속 1년차)은 지역 청년예술가를 발굴해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안착을 돕고 차세대 예술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34세

이하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별 500만원을 지원한다. 자율기획형(경계없는 예술)은 기존 장르 구분을 넘어 창의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도내 소재 1년 이상인 문화예술단체와 독립기획자에게 3000만원 내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연장 협력 예술단체 지원사업(육성지원)은 도내 공연예술단체가 공공 공연장과의 협력을 통해 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기반 마련, 공연장 활성화와 도모 및 지역주민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번 추가공모는 육성지원 유형만 선정해 4000만원 이내로 창작초연 작품 개발 및 공연, 우수 레퍼토리 공연을 지원한다. 2년 이상 활동을 한 전문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전남 소재 공공 공연장과 협약이 필수 사항이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풍물굿패 해원의 공연 모습.

##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입주작가 선정

국내 6명·10개국 출신 해외작가 13명 확정 발표

광주 남구 양림동 소재 호랑가시나무창작소(대표 정현기)가 2025년 레지던시 입주작가 모집을 실시한 뒤 최근 입주작가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레지던시 입주작가 모집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약 20일간 진행했으며, 국내 122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명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해외 239명 등 총 361명이 지원한 가운데 19명이 입주작가로 확정됐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지난 3월 28일 19대 1에 육박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2주일 간의 심사를 거쳐 국내 작가 6명과 10개국 출신의 해외작가 13명(팀)을 최종 뽑았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국제 OPEN CALL(공모)을 통해 작가 선정을 하는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와 호랑가시나무창작소가 대표적인 곳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의 경우는 2025년 해외작가 190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고,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239명 52개국의 해외작가가 지원을 했다. 이처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예술단체가 지역적 한계를 넘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평가되고 있다. 선정된 국내 작가는 △서영기(회화) △신승

엽(미디어) △이재환(실험영화·설치미디어) △이지은(회화) △임형섭(사운드·미디어) 등이 다. 해외 작가로는 △아이노야 마르티네스(Ainoha Martinez, 시각, 스페인) △알바노 에르난데스(Albano Hernandez, 도자, 스페인) △알리사 위소카(Alicja Wysocka, 영상, 폴란드) △아미나 벤부슈타(Amina Benbouchta, 사진, 모로코 프랑스) △바하르 쇼기(Bahar Shoghi, 사진, 프랑스) △크리스토프 무게(Christoph Muge, 회화, 독일) △야드비가 차르진스카(Jadwiga Charzynska, 기회, 폴란드) △나탈리 브루넬(Nathalie Brunel, 시각, 프랑스) △파오룽 쿵(Pao-Leng Kung, 장소특정형 설치, 대만) △루스 마룬(Ruth Marbun, 시각, 인도네시아) △시오나 맥브라이드(Siobhan McBride, 회화, 미국) △야스아키 오니시&미나코 요시다(Yasuaki Onishi&Minako Yoshida, 설치, 일본) △위안 린(Yuan Lin, 시각, 중국) 등이 다. 선정된 작가들은 4월부터 11월 사이에 한 달에서 네 달간 광주에 머물며 창작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들 입주작가는 레지던시 기간 동안 활발한 교류와 융합적 실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배두나 주연 ‘바이러스’ 5년 만에 빛 본다...내달 7일 개봉

김윤석과 배두나가 주연한 영화 ‘바이러스’가 촬영을 마친 지 약 5년 만인 다음 달 7일 개봉한다고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가 1일 밝혔다. 김관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이유 없이 사람에게 빠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자 택시의 이야기를 그린다. 배두나가 매사에 의욕 없이 살다가 감염을 계기로 하루아침에 변화를 겪는 번역가 택시를 연기했다. 김윤석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이근 역을 맡았다. 손석규는 택선과 소개팅으로 만난 ‘포테이토’ 연구원 수필 역을, 장기하는 택선



의 초등학교 동창 연우 역을 소화했다. 지난 2020년 촬영을 마쳤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개봉 일정이 미뤄졌다. 연합뉴스